



서울 을지로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 작품을 찍은 사진을 또 다른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사진은 감흥이나 오라(aura)를 경험하기 힘들고, 내가 그 작품을 감상했다는 기록이나 인상 깊게 봤다는 흔적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도 있다. 그것은 없어질 운명에 처한 그림들이다. 해외 도시를 거닐다 보면 벽과 출입문 등에 그려진 수준 높은 벽화나 그래피티(graffiti)를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눈에 띈다. 문래동, 을지로, 종로의 뒷골목에 가면 멋진 그래피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지방의 오래된 마을에서도 멋들어진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은 언젠가 골목이 소멸되면 함께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으며, 당장 지우고 철거해도 그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작품들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 자체를 예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디에서도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작가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머지않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려진 곳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다. 도시를 여행할 때 벽화나 그래피티를 눈여겨보자. 그리고 멋진 작품은 놓치지 말고 사진으로 남기자. 촬영 장소와 시간을 기록해두면 더욱 좋다.